

(별첨)

카드 뉴스

2024년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문화재 체계

이 문화재의 가치는
517억원이야



무형유산 전승자와
정이품송 소나무가
사물이라고?

재물 재(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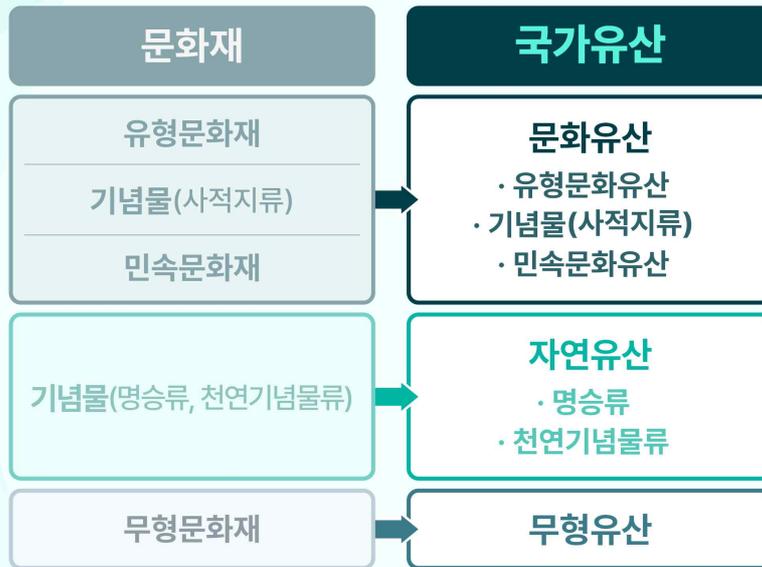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재화적 가치와 사물적 관점을 뜻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국가유산



시대 흐름에 맞춰
그동안의 인식과 한계를 벗어나고자,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합니다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국가유산 분류체계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 카드뉴스(국가유산청 출범) >

국가유산 브랜드 이미지

국가유산의 초성을 강조한 타이포그래피와
유산별 대표 이미지로 구성

국가유산 문화재의 새 이름



문화유산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유산
궁궐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표현



자연유산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인
산지 지형으로
자연유산을 표현



무형유산

공동체의 오랜 관습과 정신이
사람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무형유산을 표현

< 국가유산 브랜드 이미지 소개 >

사 진 자 료



< 국가유산청 출범(정부대전청사) >